

— Sun-19 —

금침과 장침 시술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 췌장염 1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

엄민식*, 김유선, 김영관, 최혜영, 류수형, 이정환, 문정섭

급성 췌장염은 담석, 음주 및 고지혈증, 고칼슘혈증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췌장의 염증성질환으로 외상에 의한 경우는 전체 급성 췌장염의 2% 정도로 대부분 사고로 인한 복부 둔상에 의한 것이며 날카로운 관통상에 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침술은 동양에서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용되어온 치료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대체의학의 한 분야이지만 근염, 경수막의 농양, 척추 골수염, 턱관절 농양 등이 침술에 의하여 발병될 수 있어 그 안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저자들은 장침에 의한 급성 췌장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9세 여자 환자가 내원 당일 금침과 장침시술을 받은 후, 심한 심와부 및 제대부 동통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고 음주력, 흡연력은 없었다. 신체검진에서 혈압은 120/70 mmHg, 맥박은 82회/분, 호흡수 20회/분 이었다. 복부진찰에서 장침을 맞은 부위 3군데 중 제대 바로 윗부분에 심한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반사통은 없었고 복부의 종물은 촉진되지 않았다. 검사실소견은 혈색소 13.0 g/dL, 백혈구 9,720/mm³, 혈소판 175,000/mm³, AST/ALT 15/9 IU/L, ALP 35 IU/L, total bilirubin 0.6 mg/dL, Amylase 1,164 U/L, Lipase 5,197 IU/L, BUN 14.0 mg/dL, Cr 0.8 mg/dL이었다.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에서 복부와 등의 근육에 여러 개의 금침이 보이고 공장 내부에도 금침이 박혀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췌장은 전반적인 부종이 관찰되며 췌장 주위 지방조직의 침윤소견이 있었으나 췌장조직의 과사나 낭종, 췌석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금침과 장침시술에 의한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받고 금식과 정맥내 수액요법을 시행한 후 내원 4일째부터 복통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Amylase 수치는 146.7 U/L로 감소되었다. 췌관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도 조영술에서 췌관은 정상적으로 조영되었다. 환자는 복통이 완전히 소실되어 퇴원하였다.

— Sun-20 —

자가면역성 췌장염 1예

영남의대 내과 김규진*, 최재원, 김국현, 오희주, 오현아, 이은주, 이형철, 김준환, 장병익, 김태년, 정문관

Salles 등이 처음 보고한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상 췌장의 전반적인 종대, 역행성 간췌장도 조영술상 췌관의 불규칙한 협착, 조직학적 소견으로 림프구의 침윤을 동반한 췌장 실질의 섬유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췌장염의 한 형태로 혈청 감마 글로불린의 증가와 자가면역 항체의 존재를 동반하는 질환이다. 자가면역성 췌장염은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우수하므로 병의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저자는 복통과 황달을 주소로 내원한 75세 여자환자에서 자가면역성 췌장염으로 진단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 하는 바이다.

75세 여자 환자로 내원 5일 전부터 발생한 복통과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당뇨 이외에는 특이소견은 없었고 사회력상 술은 섭취하지 않았다. 활력징후는 정상소견이었고 두경부 진찰소견상 황달소견을 보였고 흉부 진찰에서는 특이소견 없었으며 복부 진찰소견상 복통과 압통은 있었으나 반발통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상 혈색소 11.8g/dL, 백혈구 7000K/uL, 혈소판 192,000/mm³ AST/ALT 136/252U/L, TB/DB 5.7/3.6mg/dL, ALP/GGT/LDH 1119/667/332U/L, Amylase/Lipase 17/5.4U/L, 혈청 IgG 1356(700-1600), ANA양성, CA19-9 65.8U/mL이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내담관과 총담관의 확장소견과 췌장의 전반적인 종대 소견이 있었고, 역행성 간췌장도 조영술상 췌관에 다수의 불규칙한 협착과 하부 총담관의 협착과 확장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조직병리검사에서는 췌장 실질에 림프구 침윤과 섬유화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상의 소견으로 자가면역 췌장염으로 진단하였고 스테로이드 경구 투여 하면서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